

Cover Letter

지원자 : 박준범

EMAIL jun@junpark.biz
MOBILE +32 497 402 905
FACEBOOK <http://www.facebook.com/junbum.park.735944>
ADDRESS Bergstraat 623730 Hoeselt, Belgium

I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력的大部分을 마케터로서 살아왔지만 어떤 업무영역에서도 제한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한 오늘날의 제가 있도록 한 것은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경험과 조금 이른 시기에 조금 높은 레벨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했던 행운이었습니다. 패션, 스포츠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제약기업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 독일 그리고 벨기에 기업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일선에서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M&A 검토 및 실무 수행 경험도 쌓았습니다.

유럽의 회계규정, 세무규정 그리고 노무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와는 다른 노동 정서나 다국적 조직원이 함께 일하는 문화와 정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벨기에에서 활동을 하며 쌓아온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벨기에 사회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야 말로 한 차원 더 높은 업무에 결정적인 자산이라 자부하며, 저의 이러한 역량이 값지게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핵심을 짚어 적절한 대상을 찾아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반으로 외국어(영어/프랑스어) 역량도 겸비하였습니다.

항상 제 자신을 외부와 네트워킹하고 사업 기획의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지만 접근단계에는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I 2017 벨기에 경제사절단

2017년 6월, 벨기에 왕국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서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으며, 경험치를 한 단계 높이고 통상감각과 높은 수준의 국제업무 수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업부문별로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대표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벨기에 기업들이 시장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투자처로서 한국과 한국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클럽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평소 교류가 있었던 벨기에 기업들을 한국의 관련기업들에 소개하고 서로의 니즈를 조율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벨기에를 대표하는 과일 익스포터 Belexport를 절친인 홈플러스 바이어와 연결시켰던 기억이 남습니다. 러시아의 금수조치로 타격을 입은 벨엑스포트가 한국시장에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했고, 홈플러스는 벨엑스포트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PB 상품을 유럽에 런칭하는 조금 구체적인 논의까지 끌어냈으니 고유업무가 아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행복한 삶의 원천, 가족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내가 있습니다. 다소 전향적인 삶을 살아온 제 지난 인생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오늘까지 제 인생의 모든 중요했던 대목에서 제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더 과감하고 의연하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겠지요. 제 어깨에서 최소한의 부담감만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아내의 배려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용기와 미모 그리고 제 긍정적 마인드를 쫓빠 닳은 아이가 셋 있습니다. 한국보다 학습부담이 적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스포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신 양면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중압감 없이 항상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소박하지만 가장 원대한 저의 소망이며 이 곳에 남아 터전을 잡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